

작아 보이는 일의 의미

성경본문 <민수기 20장 1절 ~ 13절>

[1]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매 거기에 장사되니라 [2]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3]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4]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6]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9]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11]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세우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사람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책임도 요구하십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다시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물을 주시는 과정에서, 작아 보일수도 있는 불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평한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과 시선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중심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1. 불순종이 더 큰 죄입니다.

[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9]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11]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하고 말하고,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물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마셨고, 그들의 짐승까지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12]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꾸짖듯 이야기하고, 그들 앞에서 반석을 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분께만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2. 작아 보이는 반석, 그리고 예수님

[11]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왔습니다. 그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반석을 쳤더니 과연 물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물이 필요했을 때에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하셨는데, 그 이유를 모세는 몰랐습니다.

(고전 10:4)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보여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마음과 의가 앞서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서두름과 작아 보이는 일이라고 행동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역행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작아 보이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야겠다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2. 작은 일에도, 일상적인 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게 하소서.